

자 비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캘거리 만민교회 창립 2주년 맞다

캐나다 캘거리 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소식과 일본 이다 만민교회 복지시설 개관 축하행사, 오세아니아 주 7개국 선교 출장 등 해외 선교 소식

“올겨울은 맛있겠네”

여선교회 성도들이 참여한 제2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무렵기부터 배추절이기 김장김치 담가 나눔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 이야기

“글씨가 보여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최우수상 받은 아들 키워낸 문정규 집사와 잃었던 시력을 되찾은 백현주 자매의 신앙 간증기

만민뉴스

제407호 2009년 11월 2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올겨울은 따뜻하겠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성미 모으기’ ‘당회장님 고향 쌀 구제미’...
우리 교회 사랑의 온도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12년째 여선교회 올해 850여 가정에

여선교회총연합회(회장 조현숙 권사)는 지난 11월 23-24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김장을 지원하는 제2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를 우리 교회 뒷마당에서 치렀다.

여선교회 회원과 봉사자 600명 이상이 동원돼 담근 김장김치는 우리 교회 구제 가정과 온수동 소재 구로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신대방 2동 불우 이웃 등 850여 가정에 전달됐다.

행사를 총괄한 여선교회총연합회 부회장 권하선 권사는 “당회장님께서 좋은 날씨로 함께해 주시고 싸고 좋은 재료를 구입하며 동참한 모든 성도들 강건케 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대로 날씨는 따뜻했고, 최고급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김치를 드시는 분들의 마음까지 훈훈해졌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15kg씩 박스 포장된 김장김치는 24일 오후 4시 30분경, 신대방 2동을 시작으로 25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구제 가정으로 배달됐다.

김치를 전달받은 신대방 2동 안정희 새마을부녀회장은 “우리 관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만민중앙교회에서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는 IMF



영상의 따뜻한 날씨 속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김장김치 배춧속을 넣고 있다



11월 24-25일, 신대방 2동의 불우 이웃과 구로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후, 형편이 어렵거나 객지에 혼자 나와 있는 성도들과 교회 주변 소년소녀 가정과 독거노인들을 돌아보며 작은 섬김으로나마 주님 사랑을 전하고자 199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가 되었다.

이 기사는 3편으로 이어집니다

한 숟가락씩 모은 성미 하나님 사업 위해 쓰여

성미(誠米)는 예로부터 성도가 아침 저녁에 지어 먹는 밥쌀에서 식구 당 한 숟가락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떼어 모아 두었다가 교회에 드리는 쌀, 즉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쌀이다. 현금 못지않게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물질이다.

주일이 되면 예배국 성미부원들은 오전 10시부터 바빠진다. 본당과 2성전 사이에 있는 큰 성미통을 정리하고, 성미 드리는 분의 소속과 이름을 적는 성미기록부를



준비해 성도들을 맞이한다.

성미를 드리는 성도 중에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드리거나, 구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참여한 사람도 많다.

1, 2부 대예배 시작하기 전 성미를 드리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할머니부터 창장년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레 담은 성미주머니를 열어 성미 통에 붓는다. 열마중 지나면 성도들이 정성껏 모아온 성미가 가득 쌓인다. 올해는 매월 500kg 이상 건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쌀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성미의 중요성이 매우 컸다.”며, “생활이 어려워져서 현금대신 드렸다 해도 마음 다해 드리는 성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했다.

이 소중한 성미는 하나님의 사업과 주의 종 등을 위해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된다. 또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미 역할도 한다.

고향마을 쌀 구매해 어려운 성도 구제미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농촌에 따뜻한 이웃 사랑을 펼쳐 훈훈함을 더해 주고 있다.

이 목사는 고향살리기 일환으로 어릴 적 살던 전남 장성군 남면과 결연해 2003년부터 쌀 20kg들이 약 250포를 구입, 매월 첫째 주 성도들의 구제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성 분향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하고 있다.

김수영 면장은 “지역 농촌에 관심과 사랑 주심에 감사하다.”며 “만민중앙교회와 유대감을 더해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공직자 선교회 발족 회장에 박흥기 장로



박흥기 장로



최복순 권사

지난 11월 22일 공직자선교회(지도교사 이미영 목사)가 발족됐다. 이날 주일 대예배 후 장로회 사무실에서 열린 총회 결과는 회장에 박흥기 장로, 부회장에 최복순 권사가 선출됐다. 향후, 공직자선교회는 공직자 선교를 비롯, 교회와 성도에게 행정적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선교회는 주로 전현직 공무원, 공공 기관에 종사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2010년 초 창립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성령의 열매 (5)

자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 5:22~23)

자비의 성경적 의미는 단순히 상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마음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이해하는 마음’, 또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진리 안에서 능히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자비의 마음으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공의대로만 판결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시 130:3). 그러나 공의로는 도저히 용서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영적인 자비의 마음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의 마음이 지나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와 명예 등 외모를 보고 판단 정죄하거나 마음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약 2:1~4). 설령 육의 결여가 있어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거나 주의 교양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해도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범죄해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수군수군해서도 안되지요.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며 그가 힘을 내어 잘 통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며 즐겨 구제합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면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다(요일 3:17~18).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도움이 되기 원하고 고통을 덜어 주기 원하는 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저는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절망을 체험했기에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구제하며 참된 위로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는 어찌하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을 쓰지요. 사람들 문제를 일일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영육간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 볼 때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셋째로, 상대를 함부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징계나 지적, 책망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의와 틀 속에 사랑 없이 행할 때는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담케 할 수 있습니다(잠 12:18). 자비의 마음이 있다면 한마디 지적을 한다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저는 지적이나 책망을 제게 부탁하는 성도에게도 선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감사함으로 받는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적하는 경우라도 ‘이 말을 듣고 낙담하면 안되는데...’ 하며 영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넷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지요. 이처럼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이나 아무리 성격과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해도 상대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면 싫은 느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와 틀을 버리고 생각과 느낌을 바꾸어 나가면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나 악한 감정들이 하나하나 뿔뿔이 나므로 누구라도 품고 선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상대에게 공(功)을 돌립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잘한 일은 상대의 공으로 돌리고, 반대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신의 허물로 돌립니다. 함께 일해서 열매를 냈는데 상대만 칭찬을 받고, 내가 더 잘했는데도 상대만 칭찬을 받는다 해도 내 일처럼 기뻐합니다. “사실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이런 결점이 있는데 칭찬하시네” 하는 생각으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숙제를 도와줘서 자녀가 상을 받았다면 “왜 나는 상을 주지 않고 자녀만 상을 주느냐.”며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의 열매가 맺히면 누구라도 나보다 상대를 앞세울 수 있고 그에게 공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의 간증이 넘치며 천국에서도 아버지 형상을 꼭 닮은 자녀로서 큰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11월 8일 주일 저녁예배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설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신

캘거리 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예배

11월 22일, 캐나다 캘거리 만민교회(담임 김춘호 목사)가 창립 2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이희선 목사는 선한 지혜(약 3:17~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2부 축하행사는 김성재 전도사의 찬양에 이어 캘거리 만민교회 찬양팀과 아동주일학교 특송으로 영광 돌렸다. 한편, 담임 김춘호 목사와 이형규 장로의 임직예배도 함께 드려졌다.

이다 만민교회 복지시설 개관

11월 23일, 일본 이다 만민교회(담임 유승길 목사) 부설 복지시설 개관 축하행사가 있었다. 1부는 야마시타 요시미 부목사의 사회로 유승길 목사의 인사말, 이다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야마노우치 야키요시의 축사, 조대희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는 이다 만민교회 찬양팀들과 우리 교회 이명숙 권사의 한국 전통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행사에는 이다 시 가나에 구청장, 가나에 자치회장, 지역사회 유지, 사회복지 관계자와 의료기기 후원자 및 성도들이 참석했다. 향후, 이 복지시설에서는 영육간에 재할이 필요한 노인들, 장애 아이들 등을 섬기며 주님 사랑을 전하게 된다.



이다 만민교회 복지시설 개관 테이프 커팅식에 이다 시 가나에 구청장, 자치회장, 지역사회 유지 등이 참석했다

오세아니아 주 7개국 선교

필리핀 만민교회 배승환 목사가 11월 13일부터 오세아니아 주 7개국(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사모아, 바누아투, 통가) 선교 출장 중이다.

배 목사는 만민 지교회 및 협력교회 설립 추진, 문서선교 교두보 마련과 케이블 방송협의 등을 마치고 12월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페낭 농아만민교회 심방

우리 교회 농아인선교회 부지도교사인 지정훈 목사가 말레이시아 페낭 농아만민교회 성도들 심방차 출장 중이다. 출장 기간은 2010년 4월까지이다. 페낭 농아만민교회는 농아 성도를 위한 우리 교회 해외 최초 지교회이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예배 | 11:00 P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금요일예배 | 11:00 PM |
| 수요일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비율·마리아] | 8:00 PM |
|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나엘철야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올겨울은 더 맛있겠네”

밭에 있는 무배추가 김장김치가 되어 구제 가정으로 나누어지기까지 여선교회 성도들의 동고동락 3일간의 이야기

◆ 23일 월요일 새벽 1시 20분

배추를 가득 실은 5톤 트럭 한 대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 교회 뒷마당에 정차하자 건장한 남자 10여 명이 기다렸다는 듯 배추를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제 막 가락 시장에서 내달려온 강원도 고랭지배추다. 말이 3천 포기지 속이 짹짹 들어차 5천 포기 이상 될 것 같았다.

“애 많이 썼어요.”

이정님 권사가 레위봉사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올해 김장김치는 더 맛있겠어요.” 동행한 이숙희, 김옥희 권사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대로 맛있는 배추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며 즐거워했다.

◆ 오전 10시 ~ 오후 5시

이날 오전 10시경 일직김치 교회에 도착한 45연합회 회원들은 무, 파, 갓 등을 깨끗이 씻고 썰어 배춧속 재료를 준비했다.

마당 한켠에는 시설관리국 임영빈, 박종준, 한승현 집사가 특수 제작한 커다란 배추 절임통이 대기하고 있다. 그 속에 몇몇 회원들이 장화를 신고 들어가 배춧속 쪄켜이 소금을 뿌려댄다. 내일이면 숨이 폭 죽어 주인의 쓰기



“사랑으로 정성껏 버무렸으니 맛있게 거예요” 김장김치를 들고 활짝웃는 서학순, 고영희 권사와 김종님 집사(왼쪽부터)

에 합당한 배추가 될 것이다.

“배추를 뒤집으려면 배추를 절이는 큰 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물이 허리 아래까지 차기 때문에 다라이 통을 타고 다녀야 해요. 그러다보면 기우뚱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즐겁고 신이 납니다.” 이숙희 권사는 웃으며 말한다.

오후 5시쯤 되자, 여기저기에서 ‘뚝뚝’ 거리던 회원들이 어느새 사라졌다. 내일의 대작업을 위한 신속한 마무리다.

◆ 24일 화요일 오전 6시 반 ~ 오후 7시

이른 아침 어둠을 헤치고 회원들 50여 명이 간 죽은 배추를 씻기 위해 모였다.

“이 시간에 배추 씻으러 오셨어요?”

“네, 지금 씻어 놔야 물기 빠고 아따 다 같이 속을 넣죠” 황선희 집사가 말한다.

점심식사를 마친 오후 1시부터는 본격적인 배춧속 넣기가 시작됐다. 곳곳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썰어놓은 신선한 야채에 젓갈을 넣어 배춧속을 버무린다. 빨간 고무장갑에 앞치마, 위생 모자와 마스크까지 무장한 회원들은 물기 뺀 배추를 탁자 위로 신속히

날랐다. 뽀얀 배추 이파리를 여기저기 들추고 양념을 한 움큼씩 넣어 먹음직스럽게 발라낸다. 역시 프로답다. 손동작이 일사천리다.

“아뽀 날씨까지 이렇게 딱이나.”

올해 처음 김장김치 행사에 참여한 1연합회 임춘미 집사는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기뻐하셔서 좋은 날씨를 주셨다고 감탄했다. 임 집사는 “김장은 처음이지만, 어려운 분들께 보내는 김치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다.”며 환하게 웃는다.

영상 13도, 겨울 날씨지만 유난히 따뜻하



12년간 김치에 담겨 온 사랑

72세의 고령에도 재료 구입부터 시작해 모든 일들을 새벽 낮밤 가릴 것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정님 권사. 3시간도 자지 못할 때도 있지만 피곤한 줄 모른다. 벌써 12년째다.

“하나님 한 번 만남으로 생명 다해 헌신하는 사람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해요. 당회장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드리고 불우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구제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배추 구입을 행통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이 권사는 말한다.

“배추 경매를 ‘천냥 야채’를 하고 있는 방행석 집사님에게 부탁했어요. 집사님은 입찰 중매인을 통해 1포기에 45Kg 정도 하는 좋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저렴한 가격에 입찰받았고,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모두는 환호했지요.”

이 권사는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하며 순종해가니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더해지고 몸도 강건하다고 고백한다.



이정님 권사

- ① 완성된 김장김치를 들고 여선교회 일꾼들이 포즈를 취했다
- ② 24일, 배춧속 넣기 전 배추를 다듬고 있다
- ③ 21일, 배춧속에 넣을 야채를 밭에서 직접 깎았다
- ④ 23일, 레위봉사대원들이 트럭에서 배추를 내리고 있다
- ⑤ 특수제작한 대형 배추절임통 위에 올라가 배추를 간하고 있다
- ⑥ 무채 썰기 솜씨를 발휘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 ⑦ 절인 배추 속에 양념 듬뿍~
- ⑧ 15kg씩 박스에 포장하고 있다

다. 봉사자들의 이마엔 어느새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간다. 오후 7시경, 배추 3천 포기가 여선교회 회원들의 사랑과 함께 마무리된 맛있는 김장김치로 변신했다.

◆ 24일 오후 4시 ~ 25일

그날부터 밭 빠르게 김치 배달에 나섰다. 가장 맛있을 때 전달하기 위해서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김치를 받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바랐다.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미국 오래전 주 비버튼에 살고 있는 문정규 집사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온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 아내 장유진 집사는 항상 마음이 곤고하며 외로워했습니다. 게다가 만성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중 한 아파트에 살던 조미형 권사님 전도로 2001년 2월, 저희 가족은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권능을 목도하며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 해 5월, 제9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해 아내는 만성 소화불량을, 아들 석준이는 폐렴을 치료받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온전한 주일성수와 심일조 생활을 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지요.

우리 아들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2006년, 제가 이곳 미국 나이기 골프 컨설턴트로 파견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최하나자 집사님은 저희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지요. 그 전까지는 불교에 심취하셨고, 질병의 고통이 떠나지 않았으나 당회장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받으셨습니다. 올해 5월에는 여동생 문선미 성도도 전도되어 가족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7월 3일, 미국에 온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석준이 학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열어보니,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President's Education Award Program) 최우수상(Excellence) 상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은 우수한 성적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학생에게 주는 상입니다. 석준이는 늘 긍정적 생각을 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자 마음을 지키기 힘쓰는 대견한 아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지요. 석준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영어도 전혀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적응하며 배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6학년 전 학기 과정을 4.0 만점에 4.0을 받았고, 오래전 주에서 실시하는 영어, 수학 테스트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곳 미국은 풍요롭고 살기엔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천국 소망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요.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국인 가족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을 때입니다. 그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그 뒤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양식삼고 있습니다. 항상 진한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소망은 이곳에도 만민 지교회와 세워져 많은 사람이 성결 복음과 권능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미국 오래전 주에서 문정규 집사 가족 올림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백현주 자매 (대전만민교회 중등부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11살)였다. 어느 날, 학교에서 실시한 시력검사 때 시력검사를 했는데 왼쪽 눈의 시력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너무 놀랐다.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시력 체크를 마친 의사 선생님은 병명이 '폐용성 약시'라 했다. 그러면서 이 병은 조기 발견하면 약시 훈련 프로그램이나, 특수 안약, 안경을 사용해 치료할 수 있는데 너무 늦었다며 무척 아쉬워했다. 폐용성 약시는 시력발달 초기 단계인 영유아 시에 눈의 질병으로 안대를 장기간 사용하는 등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발생하거나 안검하수(눈꺼풀이 내려오는 증상), 백내장 등의 안과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한다 해도 시력이 0.2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가족회의 끝에 수술을 포기하고 특수 압축 안경을 착용하고 다녔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시력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좋던 오른쪽 눈마저 시력이 0.6으로 떨어졌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쪽 눈으로 생활한다는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사람들에게 짜려본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 나는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일이 잦았고, TV 드라마 시청과 인터넷 쇼핑, 예쁜 옷 구입하는 등 대리 만족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했다.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 다행이지 내성적이었다면 아마 우울증에 걸렸을 것이다.

대전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 특히 엄마의 사랑은 대단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며, 어찌하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 점차 나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뒤 공부도 잘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됐다.



안과 시력 검진 결과

| | |
|---|--|
| <p>▲ 기도받기 전 2004. 9. 11 검사 결과: 원시, 난시(좌안이 더 심한 상태) 1.2가 되었다</p> | <p>▲ 기도받은 후 2009. 11. 7 검사 결과: 양안 1.2로 좋아짐</p> |
|---|--|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기도해준 손수건으로 이희선 목사에게 기도를 받은 뒤 양쪽 시력이 1.2가 되었다

2009년 10월 28일, 대전만민교회에서 '이희선 목사 초청 성령충만 은사집회'가 열렸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오락에 재미 붙인 것들을 회개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했다. 드디어 집회 시간, 내 차례가 됐다. 이희선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감동이 임했다. 눈물과 함께 먼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다.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받은 상처, 서운함, 험기 등 좋지 않은 마음들이 사라짐을 느꼈다.

기도가 끝난 뒤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을 떴다. 그 때였다. 단 앞의 플래카드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다. 나는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그 동안 나를 버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지난 11월 7일, 5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던 안과병원을 찾았다. 시력검사 결과, 양안 시력 1.2였다. 원장은 "의학적으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라고 말했다. 13일, 나는 너무 기뻐 서울에 올라가 당회장님께 간증을 했다. 간증을 들은 당회장님께서는 기도를 해주셨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극심한 난시와 이로 인한 두통까지 치료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9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교회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68 삼익 2차 101동 704호 ☎0318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점촌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서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현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포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6-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13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1464-4512, 010-3343-1537
- 아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아수시 동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정리 산15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5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3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88-26 ☎02895-99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곶동 3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0-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88-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이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452-3 ☎031805-2418,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6-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동 340-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8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로동 465-4 ☎0316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5-1 ☎031840-2906, 019-251-3149